



김영근 기자 kyg21@chosun.com
올해 입학한 지스트 학부 신입생은 매주 음악 수업을 받아야 한다. 피아노·바이올린·플루트·기타·드럼 등 좋아하는 악기를 정해 전문강사에게 배운다. 최소한 4학기 동안 음악 수업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졸업 때까지 악기 하나는 익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밴드 반 수업에서 연주하고 있는 재학생들. 음악과 함께 스포츠 수업(6학기)과 인문사회과목(32학점)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수학·과학은 기본... 인문학이 튼튼한 창의적 인재 키운다

통합적 사고 갖춘 인재 양성

12일 오전 지스트 캠퍼스 남서편 오픈관 2층 강의실. 100명 넘게 수용하는 공간이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12명이었다. 강의 제목은 '한국문학사의 쟁점'. 기초교육학부 심우장(40) 교수는 학생 쪽 좌석에 앉아 있고, 강단에는 1명의 사회자와 2명의 발표자가 나와 있다. 2명의 발표자가 차례로 나와 '나말여초(羅末麗初) 전기소설'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한 학생은 "최치원의 작품은 소설에 가깝지만, 다른 작품들은 설화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학생은 "나말여초 전기소설에도 구체적인 환경과 인물의 성격묘사 등 소설로 볼 만한 요소가 충분하다"고 맞받았다. 다른 학생들은 '토론 대상 문학작품이 소설인지, 설화인지'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거나, 발표내용의 논리적 허점과 자료 부족 등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심 교수는 중간중간,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방식에서부터 발표를 위한 준비요령, 토론의 내용과 방향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지적하며 수업을 이끌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는 것은 주제와 토론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하면 문학작품을 예민한 감수성으로 읽을 것인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며 "작품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의 느낌을 창조적으로 정리하려 노력할 때, 평생 그 작품이 가슴에 남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주 화·목요일 인문학에 흠뻑 지스트 학부 재학생들은 이처럼 매주 화·목요일 '인문학'에 흠뻑 빠져든다. 이번 학기에는 '현대중국의 이해', '정보사회론', '개성과 정체성', '한국사의 이해', '20세기의 철학주제들', '기업과 사회', '한국문학사의 쟁점', '현대예술의 이해' 등 과목이 개설됐다.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인문사회과목 3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통합적 사고를 갖춘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길러내려는 겁니다." 이관행 학장은 "수학·과학뿐 아니라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사회 분야에도 기초가 튼튼한 학생이라야 장래 과학 발전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수·금요일에는 수학·물리·화학 등 수업과 실험을 하며, 과학자가 되기 위한 '기초체력' 쌓기에 여념이 없다. 소수정예 교육의 장점을 살려, 강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문답과 토론 위주로 이뤄진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이재은(18)양은 "교수님들은 따로 출석을 부르지 않고, 얼굴만 보고도 누가 결석했는지 모두 아신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묻고 답하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면 학생들은 일제히 음악과 스포츠 수업을 하러 달려간다. 학점은 따로 없지만, 음악(4학기)·스포츠(6학기) 강의를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축구·농구·테니스·배드민턴·골프 등 스포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공부로 지친 몸과 마음을 풀 어낸다. 음악 수업에서는 피아노·바이올린·플루트·기타·드럼 등 가지 이상의 악기를 졸업 때까지 능숙하게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보영(19)양은 "평소 하고 싶었던 드럼을 배우고 있는데, 공부하다 힘들 때 한번 시원하게 두드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말했다. ◆100명 전원 버클리대 보내 지스트는 올해 처음 학사과정을 개설, 100명이 입학했다. 2학년까지는 특정 전공에 얽매이지 않도록 '자유전공' 시스템을

통해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과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야심차게 시작된 학부 과정은 지원도 과격적이다. 신입생은 모두 수업료를 면제받고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100명 모두가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생활했다.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개월 동안 세계 정상급 대학의 여름학기 수업을 들으며 국제 감각과 영어 능력을 키우고 기초과학을 배웠다. 방학을 이용해 선발된 일부 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대학은 많지만, 재학생 전원을 한꺼번에 유학시킨 것은 지스트가 유일하다. 버클리에서 세계 여러 나라 젊은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재학생들에게 적잖은 자극을 줬다. "미국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어. 다들 좋은 성적을 얻어 자신감을 얻었고,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스트 학부 기획담당 김지훈씨는 "어린 나이에 넓은 세상을 접하고 목표를 높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올해 성과가 좋아 (해외연수) 지원을 내내에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칼텍 등 모델로 '소수정예' 지향

지스트 학부과정은 소수정예 교육을 하고 있는 미국의 4년제 '칼리지'를 모델로 삼아 운영되고 있다. 커리큘럼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칼리지들의 학사운영을 두루 참고해 만들었다. 특히 칼리지로 출발, 세계적 명문으로 우뚝 선 미국의 캘리포니아공과대(이하 칼텍)를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설정했다. 지스트는 지난해부터 칼텍과 교류협력을 추진, 칼텍측에서 지난 3월과 6월 교류 담당 교수가 지스트를 찾았다. 지스트도 지난 7~8월 2차례 칼텍측을 방문,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칼텍측은 오는 12월 또다시 지스트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여름학기 때 칼텍 재학생 3~5명이 지스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게 될 전망이다. 양 학교는 앞으로 칼텍 교수진의 지스트 강의, 기초과학 실험실 구축 및 커리큘럼 자문, 합동 연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학장은 "칼텍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가면서, 미국의 명문 칼리지처럼 실속 있는 소수정예교육 시스템을 지켜나가 세계적 이공계 명문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skim@chosun.com

週 두 번 인문학 공부 필수 소수정예 토론수업으로 진행

오후 5시 음악·스포츠 수업 공부로 지친 몸과 마음 풀어

지난 여름방학 재학생 전원 美 버클리대로 유학 다녀와

"칼텍처럼 작지만 제대로 교육하는 명문대 될 것"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

이관행 지스트 대학장

이관행(李管行·57) 지스트 대학장은 "4년간 미국의 명문 칼리지 못지않은 소수정예 교육을 통해 기초가 탄탄한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졸업생들이 세계 곳곳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눈에 띄는 활약을 하면 지스트는 자연스레 '세계적 명문대'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학부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나. "캠퍼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대학원생들이 '이제 대학 같다'고 말한다. 학부생 기숙사 주변은 새벽 2시까지 불빛이 환하게 켜진 채 북적거린다. 4학년 까지 채워지면 캠퍼스 곳곳에 생기가 넘쳐날 것이다." -모델 가운데 하나인 '칼텍'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1년8개월 전부터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다. 내년 여름쯤 정식으로 MOU를

맺고 학생 교류 등을 본격화해나갈 계획이다." -신입생 100명 전원을 버클리 여름학기에 보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훨씬 좋다. 모두들 좋아했고, 공부도 잘 해냈다. 18~19세 때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삶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부모든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매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학부과정 정원 증원계획은. "장기적으로는 입학정원을 2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기숙사와 교수 확보 등 여건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다. 서두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학부를 포함한 지스트의 미래는. "중장기적으로 학부 800명, 대학원 1200명에 교수 200명으로 학생·교수 비율이 10대 1 수준을 유지하는 소수정예 교육을 지향한다. 칼텍처럼 '작지만 정말 잘 가르치는' 명문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김성현 기자



관행과기원 제공
이관행 지스트 대학장은 "문답식 수업 등 소수정예 교육을 통해 수학·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 걸쳐 탄탄한 기초를 갖춘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두 달간 버클리대 다녀온 학부 신입생들

"한국에만 있기엔 세상은 넓어... 제 꿈 세계에 펼칠래요"

"영어공부 무조건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학생들은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면 일단 질문부터 했어요." "미국 학생들은 문제 풀이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고 풀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함께 고쳐나가는 분위기가요." 지난 여름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두 달 동안 여름학기를 이수한 지스트 학부 신입생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기회를 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은 두 달 동안 버클리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각각 2과목(6학점)씩의 정규 수업을 이수했다. 대학측은 "영어수업이라는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60명 이상이 B학점 이상을 얻었다"고 전했다. 강보영(19)양은 "자기 입장과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항상 문제제기를 하려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은수영(19)군은 "사소한 것이라도 교수들에게 스스럼없이 묻고,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교수가 연구실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



김영근 기자
지스트 신입생 100명 전원은 지난 여름방학 때 미국 버클리대에 머물며 여름학기 강의를 받았다. 가을빛이 완연한 캠퍼스에 모여 버클리 유학 경험담을 털어놓은 조민상·이재은·강보영·김수연·김동빈·은수영 학생(왼쪽부터).

되면 줄서서 기다리는 걸 보고 놀랐어요." 김수연(17)양은 "(미국 학생들은)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지 않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었고, 틀리더라도 주저 없이 자기 주장을 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또 봉사과 자기개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대규모 대학이 가진 다양한 시설에 대한 부러움도 묻어냈다. 이재은(18)양은 "체육관에는 수영과 요가에서 야구·스쿼시·킥복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운동시설이 완벽하게 갖

춰졌고, 종목마다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지난여름 얻은 가장 큰 소득은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막연히 유학을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버클리를 다녀온 뒤로는 한국에서만 살아 있기엔 세상이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무대를 세계로 넓힐 거예요." (김수연양) 조흥복 기자 powerbok@chosun.com